망자의 진상 부리기

(레20:1~27)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3.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4.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체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5.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 말씀 이후에 접신 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를 죽여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여라, 간음하는 자를 죽이고, 골육지친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소위 근친상간하는 자들을 모두 죽여라, 동성애자들을 돌로 쳐 죽여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를 죽여라, 계속해서 죽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에서 인생의 막장까지 행위가 진행돼서 개악적 행위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18장의 내용을 옮겨 오셔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죽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간음, 짐승과 교합하는 자, 박수무당을 따르거나 된 자 등의 모든 가나안과 애굽에서 확인 될 수 있었던 풍습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라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망자의 진상부리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망자의 진상부리기’
‘망자(죽은 자)가 진상을 떤다’라고 하는데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진귀한 물품이나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과 고관에게 바쳤던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점점 백성을 수탈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지방의 토산물이나 진귀한 물품을 바친다는 것이 나중에는 백성에게 억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띄게 되면서 이제는 꼴불견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볼썽사나운 짓거리를 해대는 억지스러운 손님을 진상 손님, 진상 고객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주일날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성소수자 축제가 있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한다면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이 퀴어 퍼레이드를 하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모임을 갖고 서울 시내를 2.6km나 행진을 했다고 해요. 이러한 집회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기독교 단체가 집회를 했습니다. 성소수자들 단체는 6,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고 기독교 단체가 9,000명 정도 모여서 반대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5대 4로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주 정부는 동성결혼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송국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50여 년 전 인종 간 결혼금지를 무너뜨렸던 판결 이래 가장 역사적인 판결이다'라고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그렇게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이유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헌법은 법이 닿는 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약속했으므로 이 약속을 따라서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적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사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 동안에도 36개의 주가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었고 불과 14개 주만 허용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연방법이 결정 되었으므로 다 허용해야 될 판입니다. 14개 주도 편할 겁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신경 쓰고 욕을 먹다가 '아예 잘 됐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전 세계의 수퍼 대통령이라고 하는 버락 오바마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국인들의 승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좀 가만히 계시면 좋을 텐데 UN사무총장이신 반 기문 총장님이 한술 더 떠서,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역사적인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미국 인권을 진전시킨 거대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면 생각이 트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 모양이에요. 미국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UN사무총장 자리 또한 꿈에나 꿔볼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에 있어도 영적인 유치함과 영적 무지와 영적 추잡함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냥 오물과 배설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인데 이게 인간입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말한 '자유'라는 것을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함께 나누고 있는 맥락으로부터 정의를 내리자면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의 지성소인 첫 번째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들어와 있을 때에 나타나는 욕구를 방해받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대법관인 앤서니 케네디가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자유라는 것은 마음의 지성소가 하나님 맞춤형 사이즈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모셔 들여서 사는 것이 거룩함인데, 이 대법관이 말하는 것은 거룩을 정면으로 깨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장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인생 끝장까지 행위가 개악적으로 진화된 상태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합법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느

냐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막장 행위가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이 바로 마지막까지 최고로 진화 된 상태의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들어와 있을 때에는 대법관이 판단한 것처럼 그 상태에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판단과 생각이 나가는 길이 자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들이지 않으면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면 왜 안 되는지의 절대적인 근거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도덕, 윤리, 철학, 심리학, 문화 인류학도 절대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어느 종족이 습관적으로 동성애를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다든지 하는 것뿐이지 그것들은 다 상대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돌로 쳐 죽여야 할 정도로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시는데 어떻게 해야 동성애가 거부될 수 있느냐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야 동성애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들여놓지 않고 대신에 마음에 돈을 들여놓은 사람이 동성애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다 상대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이 참 허무하게 되어 버린 이유가 몰렉에게 제사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인신 제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개개인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는 자는 여자나 남자나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간음이라는 것이 합법화 되어 버렸습니다. '간음죄'라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동성애도 이미 미국의 36개주 70%의 미국 국민들이 자기가 동성애를 하지 않더라도 그 결혼이 합법적이라고 인정을 해버린 상태에서 마지막 30%까지 동조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풍습, 애굽의 풍습으로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시고 경계 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회법상, 국가법상으로 합법화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삼스럽지 않은 것은 3,500년 전의 가나안과 애굽과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그렇게 동성애로 편만하고 근친상간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하는 아동성범죄 같은 것도 다 옛날에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세상에는 절대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들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좋아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들이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않고 다 상대적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와 계신 상태에서 생겨나는 욕구를 풀어주는 자유가 절대적인 요청으로 이상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우려한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대로 우리 시대에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다 선민인 것도 아니고 선민들이라고 생각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동성애자가 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죽이기는커녕 캐나다나 미국, 유럽 교회에서는 동성애자로서 결혼한 자들이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한다고 농성을 하고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행동 자체가 기독교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고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죽일 수도 없고, 주님의 복음의 시대에 그래서도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이 죽음과 연결을 시키는 이유는 죽어야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우상숭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고 이미 죽은 자들이 떨어대는 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의 죽음은 태초로 올라가서 생각해보면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억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바닷물이 양 옆으로 벽처럼 서 있습니다. 물의 성질은 아래로 흐르고 싶은데 그 성질이 억제되면서 벽처럼 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애굽 군대가 들어서자마자 억제되고 있던 바닷물이 다 합쳐지면서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는 홍해처럼 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억제되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내 삶을 뒤덮지 않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타락 이후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처럼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견을 내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과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내 삶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친 상태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 이전의 상태입니다. 존재 이전의 상태이기에 죽음으로 획일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근친상간이 일어납니까? 혼돈이 덮쳤기 때문입니다. 공허가 덮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쁘지 않습니다. 진상을 떨고 있는 것뿐이죠. 죽은 자들이 꼴불견의 행동을 하고 볼썽사나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포착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도 자꾸 교회가 동성애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성경에서 간음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사회법으로 합법화 되고,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 동

성애자들의 결혼을 국가법으로 인정하게 되고, 미국 돈을 보면 'IN GOD WE TRUST(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이 취임식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 그 나라가 인정을 하게 된 이유는 교회가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었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캐나다 교회가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동성애 반대를 논리적으로 하려면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꺾어야 한다고 연구진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이 1년 동안 연구하고 나서 총회에 보고를 하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보류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더 연구를 해서 발표하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발표할 때에는 그들에게도 사정이 있다면서 동정론이 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발표를 할 때에는 인정론으로 돌아섭니다. 그 다음으로 발표할 때에는 합법화 시켜버립니다. 이 사실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서도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있고 기독교 사상이 들어간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과 캐나다에 와서 유학하면서, 학교에서 동성애가 이슈가 되니 그 동성애를 연구하다가 반대를 보류하게 되고 묵인하게 되고 동정하게 되고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는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우상숭배 같은 막장 행위들을 없애는 길은 그 막장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동성애를 연구하게 되면 마귀는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내려 주셨습니다.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으면 잘못된 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간음을 사회법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그들이 가는 길이니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 선민들은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으면 그 정도의 악한 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법이 무효해 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죽임 당함까지도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심지어 근친상간한 자와 동물과 교합하는 자도 그의 죽음을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와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어쭙잖게 행동을 향한 호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온 장로님이 동성애자인 아들을 쳐 죽이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마음에 돈이 좋아서 돈을 들여놓은 장로님에게 차분히 마음을 먹고 1년 동안 동성애를 연구하라고 한다면 동성애 반대에서 보류자가 될 것입니다. 2년간 연구하면 찬성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의 자식을 들여놓고 돈을 들여놓고 권력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이 어떤 꼴이냐면, 대전을 지나는 중에 금강 유원지를 달리면서 부산에 도착한 사람들의 전화를 받고 부산까지 도착한 것은 악하다고 하면서 그런 악행을 막기 위해서 경부선을 다 뜯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지성소

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의 박애주의라면 첨단으로 동성애에 빠지고 지지자가 됩니다. 반 기문 UN사무총장님이 그런 꼴이 났고 그런 진상을 떨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이 가장 좋은 상태이자 가장 평안한 상태로 나아가는 거룩한 길을 다 깨버리면서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동성애자인 네가 죽어라, 주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근친상간자인 네가 죽었음을 받아들여라, 주님께서 너 대신 죽으셨다.'라고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 자들을 다 모아다가 효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효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리던 사람들이 말려들고 동성애자로 변해갑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처음에는 동성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미 36개주가 인정하게 되고 나머지 14개주도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이 세상의 악은 우리가 그 악에 대해 논리적으로 맞서거나 감정으로 맞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부터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그들이 십자가를 붙잡거나 거부하거나 그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악행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긴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가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들판의 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백합화로 피는 것이고, 공중을 나는 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존재가 유지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면 곧 혼돈과 공허로 휩싸여 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딸이나 누나, 고모나 이모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혼돈이 아니며 무엇이겠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혼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혼돈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과 반 기문 UN사무총장과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법관의 자리에서 왜 그렇게 꼴불견의 볼썽사나운 짓거리를 떨어대느냐? 그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안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극렬히 반대하는 목사님이 그 마음의 지성소에 예배당 건축이 들어 있습니다. 교인의 수적인 부흥이 들어가 있어서 매일 부흥, 부흥 노래만 부르고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분에게 반대하기 위해 동성애를 연구하라고 한다면 이분은 1년 만에 보류로 돌아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이 한 마디의 구절을 붙잡고 동성애를 깨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지 말란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을 하지 말란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먹는 정치인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장로님들인데 아주 상징적인 것이죠. 아무리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는 사람이라면 도둑질을 하지 말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도둑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마음에 들여놓을 만큼 좋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시지 않는 한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이미 죽은 상태이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어버린 상태인데, 그 상태가 바로 이렇게 진상을 떠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너는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빨아들여 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화목제의 의미를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고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하여 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벤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을 대인대물관계에서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므로 동성애와 간음과 근친상간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를 반대하기 위해 모인 모든 극렬분자로서의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동성애 반대를 위해 쫓아다니다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로 바뀔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계속 반대할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도 못할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반대하라고 했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지성소에는 돈을 좋아하고 예배당 건축을 좋아하고 수적 부흥을 좋아하고 자식을 좋아하고 건강을 좋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만만찮게 가증스러운 진상떨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나안 땅 같이 문란해지는 이 세상을 행해, 애굽 땅처럼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미국을 향해, 우리나라를 향해 논리적으로 연구해서 따질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오직 하나만을 위해서 입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동성애자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친상간 자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친상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친상간한 당신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

다'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받아들인다면 근친상간을 했더라도 선민이고, 근친상간을 반대하는 자라도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생활화할 수 없다면 선민이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 죽고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지 않고 하는 모든 지지와 모든 반대가 다름 아닌 꼴불견이고 볼썽사나운 진상떨기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무릎 꿇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